

지역 소식통

제17회 부안 님의 뽕 축제
7월 31일-8월 3일 개최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남)는 부안의 대표 특산품인 오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17회 부안 님의 뽕 축제를 오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4일간 부안읍 분수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안서립신문사가 주최하고 부안군과 K-water 부안권지사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안산 뽕 관련 제품의 전시 및 판매는 물론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로는 오디주스 빨리 마시기 대회, 오디 나르기 릴레이, 열음 속 뽕주 찾기, 오디 열음판 오래 서 있기 챌린지 등 오디를 활용한 이색 이벤트와 함께 누에고치 전시 및 누에실 뽕기 등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유쾌한 놀이와 건강한 웃음을 선사할 전망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낮에는수국 · 밤에는조명

정읍시가 한국가요촌 달하에 수국정원과 야간 경관조명을 조성해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산책 공간을 제공한다.

최근 가요전시관을 새롭게 단장해 운영에 들어간 한국가요촌 달하에는 다양한 품종의 원예수국과 목수국으로 꾸민 정원이 조성됐다.

현재 목수국이 탐스러운 꽃을 활짝 피우면서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다.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하얀 꽃송이는 방문객들에게 여름의 정취를 느끼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시는 밤에도 수국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은은한 조명이 수국과 산책로를 비추면서 낮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해 한국가요촌 달하를 낮과 밤 모두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산책 명소로 만들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하천 내 불법 상행위 시설 철거

정읍시, 전담반 꾸려 집중 정비활동... 총 3곳 철거 등 공공 공간 회복 '속도'

정읍시가 하천·계곡의 불법 상행위 시설 3곳을 모두 철거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637건에 대한 정비를 이어간다.

이번 정비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전국 하천·계곡의 불법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시는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종합 정비계획을 수립해 불법행위 637건을 적발한 뒤 사전 계도에 나섰다.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행위 가운데 196건은 조치를 마쳤으며, 나머지 441건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민 이용을 방해하는 하천 내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정비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적발된 3곳을 모두 철거

해 100%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시는 하천 내 불법시설이 집중호우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해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현수막 설치와 전광판 안내 등 홍보 활동을 병행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하면 무단 점용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수협, 꽃게 종자 78만2000미 방류

변산면 공항 앞바다 인근 연안에 풀어... 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부안수협(조합장 송광복)은 지난 22일 부안군 관내 연안에서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꽃게 자원 조성을 위해 계약된 꽃게 종자 78만2,800미를 변산면 공항 앞바다 인근 연안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특히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주관하는 (주)한국해상풍력과 민관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넓지 약 31만 미가 우선 방류됐다.

특히 이번 방류는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주)한국해상풍력에서 2026년 사업비 2억4200만 원을 지원했다. 꽃게 방류는 남은예산 1억2100만원으로 진행되고, 전북특별자치도청, 부안군청, 부안수협, (주)한국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

송광복 조합장은 "어업인에게 이번 방류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종자 방류와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풍요로운 부안 앞바다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수, 고창 건고추장터 찾아 농업인 격려

명품 고추 생산 위한 지원강화 방안 논의 등 소통의 시간 가져... "명품 해동고추 지원 확대"

심덕섭 고창군수가 23일 아침 고창 건고추 장터를 찾아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명품 고추 생산을 위한 지원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심 군수는 고창건고추상인회, 읍면지역 고추 작목회장 등을 만나 농민들이 자식처럼 키운 건고추의 현지 유통 상황과 시장 가격 등 현황을 파악했다.

또 전국 최고 품질인 고창해동고추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고창 건고추 장터'는 11월23일까지 약 4개월간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고창읍 녹두로 1265)에서 매주 주말과 고창 장날(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건고추 장터가 고추 생산 농가에는 든든한 판로가 되



고,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의 건고추를 안심하고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

두가 만족하는 상생의 직거래 장터로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시민참여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내달 21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시민의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8월 21일까지 정책제안을 공모한다.

시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26년 하반기 시민참여 정책제안 페스티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에는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과거 1년 이상 정읍에 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정읍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사람도 응모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2건까지 제안할 수 있지만, 시상은 1인 1건으로 제한된다.

공모 주제는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 △생활인구 확대와 가족친화 정책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체류형 관광·먹거리·축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부금 활용 △그 밖의 정읍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이다.

참여 희망하는 사람은 정읍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기획예산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팩스(063-539-6504)와 전자우편(skjddn12@korea.kr)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접수처는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3층 기획예산실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복지급여 입금시간 오전 9시로 고정 운영

고창군이 사회복지분야의 적극적 복지 전환의 일환으로 복지급여의 입금시간을 오전 9시로 고정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는 매월 20일,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있지만 입금 시간이 제각각으로, 주민들은 애타게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입금시간이 고정되면서 주민들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고창군은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잠재적 복지대상에게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가장크게는 신규로 복지급여를 신청한 주민의 경제상황을 살펴 놓치는 복지급여가 없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2026년 주요업무보고 · 총 12건의 안건 및 제1회 추경안 심사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23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일정으로 제32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12건의 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주요 심사 안건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소관 △고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본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 · 관리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고창군 의용소방대 지원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종열)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 총 12건의 의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위원

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경신·임종훈·강상원·김삼용·최선례 의원(5명)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임정호·박종열·진남표·조규철 의원(4명) 등 총9명이 선임되었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각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미진한 사업은 원인을 함께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철저히 걸러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